



# energy snapshot

Analyst. 손지우 / 3773-8827, jwshon@sk.com

## 트럼프와 사우디는 유가하락을 원한다

- ▶ 트럼프/사우디는 계속해서 유가하락 조장하고 있음. 상반기 유가 상승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 시 유가하락 가능성 높음. 미국-사우디-러시아 산유량은 전 세계 40% 이기에 기타국가 감산노력 무의미함

### OPEC을 압박하며 유가하락을 조장하려는 미국

#### 트럼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OPEC에 유가인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OPEC(석유수출국기구) 독점가들은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도움이 되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이 산유국들에 유가 하락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공개 압박한 것은 일주일 새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우디의 석유 생산을 대략 200만 배럴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그에게 설명했다. (석유) 가격이 높다!"라며 "살만 국왕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연합뉴스(2018년 7월 5일), SK증권

### 미국의 의도에 화답하는 사우디와 수니파의 우방들

#### 사우디·UAE “원유 공급 안정 위해 기꺼이 증산”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유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내각은 3일 살만 국왕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사우디는 원유 수급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면 현재 쓰지 않는 산유 시설을 추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 ADNOC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원유 생산 능력을 현재 하루 평균 330만 배럴에서 올해 말까지 350만 배럴로 늘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원유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지난달 하루 평균 산유량은 287만 배럴이었습니다. (하략)

자료 : 연합뉴스(2018년 7월 4일), SK증권

- 상반기 내내 유가 상승을 위한 많은 지정학적 요인을 만들어낸던 미국(트럼프)과 사우디(MBS)의 태도가 지난 달부터 급변을 했죠
- 공교롭게도 아람코IPO 연기 입장을 취한 직후인데요. 이후 트럼프는 증산을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달 결국 사우디는 러시아 및 OPEC을 증산까지 이끌었습니다
- 트럼프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OPEC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증산의지를 보인 사우디에 구체적으로 200만b/d 추가 증산까지 요구했다고 하죠.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이에 동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남기기까지 하면서요
- 추가적으로 사우디는 굳건한 동맹인 UAE와 어제 기꺼이 증산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 원래부터 석유 fundamental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연말부터 미국과 사우디의 정정불안 야기로 인해 올랐던 것인데, 이제 이 요인이 마무리 되니 유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는 하반기 유가약세 의견을 지속합니다

- 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사우디 / 미국 증산으로 되겠어? 이란 / 베네수엘라 / 이라크가 감산한다는데”라며 유가를 상승시키네요
- 2가지를 보셔야 하는데, 사우디와 미국은 각각 1,000만b/d 이상을 뽑아내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이미 증산에 합의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17년 BP 기준으로 보면 셋이 합쳐 3,627만b/d로서 전 세계의 거의 40%인데, 이란 / 베네수엘라 / 이라크 합쳐봐야 1,161만b/d입니다. 이들이 대적할 레벨이 아니죠
- 두 번째로 미국 / 사우디 / 러시아가 증산하는데 이란 / 베네수엘라 / 이라크가 감산해서 유가 받쳐주면 누가 좋을까요? Game theory라고도 하죠. 그런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